



01. ‘부흥과 회복’ 집회를 통해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기도와 감사로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02. 향존직 은퇴식

주일찬양예배 시 향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겨주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시무장로: 정용팔 최산목 김익희 남경우 김신기 윤진표 한국진 (7명)
· 안수집사: 강중근 고장훈 곽형동 권오성 권형국 김경하 김기동 김대홍 김동국 김상래 김상호 김선석 김영길 김원년 김유선 김주섭 김형중 김형환 남기성 박경열 박용규 박용남 박우일 박종희 박태엽 박형기 방철호 방현수 서성호 서영찬 손양욱 손우화 손현선 송무현 송영득 송용흡 송희철 산한식 오용순 오홍근 유근하 유민관 유병관 유영길 유태부 윤봉학 윤수중 윤순익 은희권 이진화 이정립 이달용 이동일 이상근 이성효 이용창 이재열 이정현 이종건 이종관 이진운 이지훈 이한명 임낙열 임택빈 임주호 임체학 임환철 장복현 장 옥 전병태 정성규 정영복 정용준 정우동 정일영 정정운 정정일 정진홍 조근목 조명제 조홍식 지규섭 최원규 최종인 한영수 허규양 황영준 황혁규 (89명)
· 권 사: 강명심 강신옥 구점수 권영규 권유경 김경순 김광희 김귀순 김귀자 김규자 김금옥 김내실 김량희 김명희 김미경 김봉희 김선희 김선희 김성애 김성진 김순경 김순희 김영숙 김영일 김은교 김용애 김월심 김자원 김정순 김화란 나경희 남수귀 남창숙 노연호 두혜정 류왕행 문안심 박복순 박순덕 박월서 박은숙 박찬임 박희원 백영희 백화경 서미석 서영숙 서천순 소양숙 소연수 손명숙 송명호 송연옥 신화경 심정숙 안평옥 오태순 원란숙 윤광원 윤순섭 윤연숙 이경민 이광용 이기숙 이명옥 이명인 이명자 이병수 이병주 이선희 이승자 이승희 이양기 이연하 이영숙 이은숙 이정숙 이정애 이진화 이해련 임순빈 장란숙 장민혜 장숙자 정근복 정금화 정애숙 정정순 정혜숙 조미자 조순임 조순자 조필숙 조혜정 지숙희 최 경 최명순 최병순 최영자 추동래 하선호 하경자 한명순 한선영 현명숙 현순이 황혜영 (110명)

03. 교회학교 예배 안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유치, 유년, 소년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중·고등학교 예배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각 예배실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예배 주소: http://nfriends.or.kr).

04. 학위수여식

본 교회 신경민 목사가 장신대 대학원(Ph.D.)을, 조성민 목사가 장신대 목회 전문대학원(Th.D.inMin.)을, 김경환 전도사가 장신대 대학원(Th.M.)을, 임기도, 정구현, 정복 전도사가 장신대 신대원(M.Div.)을, 신재희 전도사가 백석대 신대원(M.Div.)을 졸업합니다.

- 장신대 학위수여식: 2.10(목) 오전 10시
· 백석대 학위수여식: 2.17(목) 오전 11시

Table with 2 columns: 금주 신생아 (4명), 명성교회 출생 신생아(2022년 1월 - 현재) (총 21명)

상처 입고 길 잃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모여들었고 그런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팔복으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영어권에서는 팔복을 'Beatitudes'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beo'(행복하게 되다, 복 있게 되다)와 'attitude'(태도, 마음가짐)의 합성어로 곧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로 인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마음을 가진 행복

가난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여기며, 애통하는 자는 행복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도 천국의 마음가짐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팔복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지금 처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복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위를 향하는 마음

우리는 삶이 긍정적이지 못하면 마음이 밑으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긍정의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그전에 먼저 천국의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천국의 마음을 가지면 어느새 마음이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울음 속에서, 가난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속상함 속에서 우릴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위의 마음, 위를 향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을 품어 갖는 것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소망의 마음을 가지면 소망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국의 마음을 가지면 천국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이미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팔복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기는 이들

Table with 4 columns: 원로목사 (김삼환), 담임목사 (김하나), 협동목사 (김도훈, 노영상, 최운배), 교육목사 (김은혜, 이승갑), 목사 (권삼열, 김남수, 김동민, 김동진, 김득열, 김병규, 김봉기, 김석호, 김선우, 김요한, 김우종, 김윤호, 김은영, 김은자, 김준곤, 김준환, 김춘희, 김희영, 류현웅, 문명석, 문승진, 박영호, 박요한, 박현규, 방유경, 배성현, 백재용, 서찬성, 손원재, 손지목, 신경민, 신동신, 신충현, 여주형, 우종협, 유태규, 윤석진, 이경민, 이대선, 이덕기, 이서구, 이정수, 이지명, 임용섭, 임은목, 장중민, 정구일, 정홍배, 조성민, 조재영, 천혜림, 최대열, 최애녹, 한바울, 허승환, 황대석, 황정준)

